

전남-경남 농업인 '화합 한마당' 성료

✎ 이강산 기자 | ㉠ 승인 2024.12.03 16:48 | □ 호수 3638 | ▢ 12면

신안서 지역 특산품 교환 등

[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영호남 농업인 화합을 다짐하는 의미로 각 지역 특산품을 상호 교환했다.

희망이 샘솟는 1004의 섬 신안군에서 제20회 영호남 농업인 화합 한마당이 11월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농민이 잘 사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는 주제로 신안 국민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이학구 직전한농연중앙연합회장, 김향숙 한여농전남도연합회장,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박우량 신안군수,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김성일·최미숙 도의원,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과 박종택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강문규 경남지역본부 경제부분부장, 조영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방도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영호남 농업인 화합 한마당에 참석한 신안군과 자매시군 하동군 회원들이 포즈를 취했다.

홍영신 한농연 전남도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영호남 화합과 상생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작금의 농업 어려움과 농정을 함께 고민해 더 나은 정책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화 한농연 경남도회장도 “우리 농업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영호남은 과거 비바람과 태풍에도 함께 다시 일어선 것처럼,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대한민국 농촌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고 농민들과 희망찬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을 갖고 있는 이곳 신안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오늘 영호남 농업인이 화합하는 자리를 통해, 앞으로 영호남이 함께 상생할 수 있게 힘을 모으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명산업·민족농업 사수를 위한 영호남농업인 공동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영호남 농업인 화합을 다짐하는 의미로 각 지역 특산품을 상호 교환 및 각 지역에서 생산한 술을 담아 만든 화합주를 나눠마시며 우정을 나눴다.



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